

# ◆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사업 설계공모 현장설명회 참고자료 ◆

## 1 전주의 근·현대 한국영화史 역사적 장소로서의 정체성

- (한국영화산업 태동기를 함께한 지역) 전주는 한국영화사에서 주목할 만한 영화(아리랑, 선화공주, 피아골 등)가 제작된 장소
- (서남권 극장 활성화 공간) 1920년대 제국관을 시작으로 50~60년대에는 대형극장(삼남극장, 코리아극장 등)이 건립되었고, 80년대에는 지역 단관극장이 12개소 이상 성업할 정도로 영화인들의 추억이 아로새겨진 한국영화사의 공간적 정체성 그 자체

[그림 1] 전주에서 제작된 1950년대 영화



이강천의 <아리랑>(1954)

이강천의 <피아골>(1955)

최성관의 <선화공주>(1957)

※ 「전북영화사 / 김건 외 3명 / 신아출판사 / 2006」 발취

[그림 2] 전주 영화의 거리 극장사



※ 「2019년 전주국제영화제 20주년 기념사업 자료」 발취

## 2 전주시 영화영상 주요 추진 사업 현황

### ① 전주국제영화제

- 올해 22회째를 맞이한 전주국제영화제는 도전하는 영화, 실험하는 영화를 지지하며 '영화, 표현의 해방구'로 전세계에서 주목받는 영화제로 성장



- ① '영화의 본질은 만드는 기술이 아닌 표현에 자유에 있다.'는 시정철학으로 독립, 대안 영화의 든든한 울타리로 자리매김
  - 영화진흥위원회 국제영화제 평가 2년 연속 1위('16. ~ '17.)
  - 최근 5개년 국고보조금 지속적 증가('16. ~ '20.)
- ② 국내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영화제로 성장
  - '17. 미국영화전문잡지 「무비메이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25개 영화제 (아시아유일) 선정
  - 코로나19의 국면에서도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세계 최초로 영화제를 치러냄으로써 전세계가 전주국제영화제를 주목

#### ◇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 행사기간 : 매년 4월말, 5월초
- 행사공간 : 전주시 영화의 거리 일원, 팔복예술공장 등
- 규 모 : 50여개국 220여편 영화상영, 초청게스트 3,000여명
- 사 업 비 : 50억원 정도
- 행사내용 : 개·폐막식, 시상식, 영화상영, 포럼, 부대행사 등

### ②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 2024년까지 전주시 구도심에 국내·외 독립영화의 메카이자 플랫폼이 될 <전주독립영화의 집> 건립 추진으로 진정한 영화의 도시로 도약할 예정

#### ◇ 전주독립영화의 집 건립

- 사업기간 : '18. ~ '24. <7년>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40-1(옥토주차장)
- 규 모 : 부지 15,150.4㎡, 건축면적 : 2,455.85㎡, 연면적 : 7,057㎡
- 사 업 비 : 628.4억원(국비 180.5, 지방비 447.9) ※ 부지매입비 267.4억 포함
- 사업내용 : 독립영화 라키비움, 독립영화 아카데미, 시네파크 등
- ※ 라키비움(Larchiveum) : 도서관(Library)+기록관(Archives)+박물관(Museum)

### ③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DB 구축 사업

-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영화 효과음원의 국산화 및 보급을 위하여 '25년까지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3만건을 구축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국내 최초의 공공 유통 플랫폼을 마련함으로써 창작자 및 수요자의 공공서비스 향유권 향상을 시도

- ◇ 한국형 효과음원 DB 및 사운드 댐 구축 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 ~ '25. <6년>
  - 수행주체 : 전주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 사업비 : 122억원(국 61, 시 61)
  - 사업내용 : 영화 및 실감형 콘텐츠에 사용될 효과음원 10만건 구축, 블록체인 기반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유통 플랫폼 구축

#### ✓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활용 대표작품

				
<기생충> 감독 봉준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감독 김용훈	<82년생 김지영> 감독 김도영	<가장 보통의 연애> 감독 김한결	<국가부도의 날> 감독 최국희
				
<변산> 감독 이준익	<염력> 감독 연상호	<택시운전사> 감독 장훈	<옥자> 감독 봉준호	<부산행> 감독 연상호

### ④ 전주시 후반제작시설

- 영화진흥위원회 주관 '2019년 지역영화 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 사업 선정으로 기 구축 시설에 활력을 불어 넣을 최신 장비 도입 및 독립·대안영화, 지역영화 지원 시스템 구축

- ◇ 2019년 지역영화 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사업 선정
  - 공모주관 : 영화진흥위원회
  - 사업기간 : 2019년
  - 사업비 : 8.3억원(국비 5.75 시비 2.55)
  - 사업내용 : 전주영화제작소 디지털 색보정실 색보정 장비 및 전주음향마스터링 스튜디오 후반음향녹음 장비 구축 및 최신화
- 지역 후반제작시설 최신화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독립·대안영화 및 지역영화 지원체계 구축 완성



<전주영화제작소 디지털 색보정실>

- 개 관 : 2009. 5.
- 위 치 : 전주영화제작소 3층
- 규 모 : 578㎡
- 주요시설 : 디지털 색보정실, 영상편집실, 영상 교육실, 촬영임대장비 보관실 등
- 사업내용 : 독립영화, 지역영화 후반제작지원 및 교육사업
- 주요실적 : 색보정, 편집, 임대 등 시설임대 302회, 이용업체 182개소('17년~'20년)

<전주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 개 관 : 2010. 3.
- 위 치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층
- 규 모 : 358㎡
- 주요시설 : 음향제작실, 음향믹싱룸, 음향종합편집실
- 사업내용 : 독립영화, 지역영화 사운드 편집, 영화 후반 제작 지원(음향) 및 교육사업 추진
- 주요실적 : 음향 편집, 녹음, 동시녹음 등시설임대 501회, 이용업체 501개소('17년~'20년)

⑤ 전주영상위원회, 전주영화종합촬영소

- 2001년 4월 출범하여 영화 기획·제작 단계에서부터 전략적 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전주의 영화산업 역량을 국내·외에 알림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시설현황소개**

전주시 상원동에 위치한 전주영화종합촬영소는 면적 6,800여㎡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J1스튜디오(200㎡)와 지상 2층 규모의 J2스튜디오(311㎡), 그리고 야외세트장(48,888㎡) 등 2층 규모의 야외촬영센터(112m)로 조성되어 있으며 세트 제작실과 스텝실, 화장실,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다면 자연 촬영소와 차별화된 J1스튜디오와 J2스튜디오는 비 오는 날을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수압조절장치 17m 가량의 높은 천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서 특수효과 촬영에 최적화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에 개관한 전주영화종합촬영소는 자체사자제작기 직접 설립한 최초의 촬영소이며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야외 세트장은 전국 최초로, 2008년 화제를 낳은 영화인 촬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많은 작품이 촬영되고 있습니다.

**J1**  
 1F 스튜디오(200㎡) 세트제작실, 분장실, 소품실  
 2F 스텝실, 화장실, 휴게실

**J2**  
 1F 스튜디오(311㎡), 무속현(200㎡), 다목적실, 분장실  
 2F 촬영사무실, 스텝실

**야외세트장**  
 야외세트장 : 48,888㎡

**야외촬영센터**  
 1F 소품민간실  
 2F 스텝실, 분장실, 화장실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유치작품**

1. 영화 가솔 (2017년 유치)
2. 영화 범죄도시 (2017년 유치)
3. 영화 남산의 부장들 (2019년 유치)

<주요 촬영유치 작품>

- 현재까지 총923편의 장편영화 및 드라마 유치
- △기생충, △신과함께, △남산의 부장들, △범죄도시, △말모이, △쌍화점, △그림자살인, △전우치, △부당거래, △최종병기활, △은밀하게 위대하게, △미스터 선사인, △돈꽃, △백일의 낭군님 등

## 참 고 영화의 거리 극장 현황 자료

전주시 고사동 영화의 거리에는 1920년대 제국관을 시작으로, 50 ~ 60년대에는 삼남극장, 코리아극장과 같은 대형규모의 극장이 들어섰고, 80년대초 공연법 개정으로 12개 이상의 단관극장이 자리할 정도로 영화의 도시 전주를 상징하는 역사성 그 자체임

### □ 영화의 거리 주요 영화관 연혁

1920~30년 대		<p>▶ 제국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5. 9. 개관, 1936년 제국관으로 개칭</li> <li>- 이후 전북도립극장, 전주극장으로 개칭</li> <li>- 구)전주백화점 자리에 위치</li> </ul>
1940~50년 대		<p>▶ 백도극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관 시기 알 수 없음(1951년 전북일보 광고를 통해 50년대 성행 영화관으로 추정), 1959년 폐업</li> <li>- 이후 씨네마 오스카극장, 아카데미 극장으로 변화됨</li> <li>- 구)일도문고 자리에 위치(구도심 인근)</li> </ul> <p>▶ 시민극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6. 9. 개관</li> <li>- 1959년 누적 관람객 172,228명이 영화 관람</li> <li>- 현)라마다 호텔 앞 우신호텔 자리에 위치</li> </ul>
1960~70년 대		<p>▶ 삼남극장(대형극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2. 3. 개관, 연극단과 악극단의 공연 등 복합문화공간 역할</li> <li>- 삼남여객 이용우 사장이 건립</li> <li>- 현)조이엔시네마 자리에 위치</li> </ul> <p>▶ 코리아극장(대형극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2. 3. 개관, 1,182석의 호남 최대 규모의 극장</li> <li>- 대한여객 김현철 사장이 건립</li> <li>- 현)전주시네마타운 자리에 위치</li> </ul>
1980년 대		<p>▶ 전주 고사동 영화의 거리의 르네상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1. 12. 31. 공연법 개정으로 100평 미만의 공연장의 허가 대상 제외, 이에 소규모 단관극장이 12개 이상 성업</li> <li>- 피카디리극장, 코리아극장, 아카데미극장, 중앙극장, 명화극장, 태평극장, 코아극장, 전주극장, 국제극장, 아세아극장, 씨네마극장, 뉴코리아극장, 프라자극장, 스타극장 등</li> </ul>